

## 국 외 소 식



### EU, AI 발생지역 개·고양이 실내 수용 권고

유럽연합은 독일의 고양이에서 치명적인 H5N1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바이러스 발견 지역에서는 고양이와 개를 실내에서 기르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EU 수의학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애완용 동물, 특히 고양이와 야생조류 사이의 접촉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고양이는 반드시 실내에 가두고 개는 끈에 매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양이에 이어 개도 AI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집 없는 개나 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될 경우 즉각 보건 당국에 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 2006년 3월 3일

### AI사망자 곧 100명 넘어설 듯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사망자가 곧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세계에서 확인된 AI 감염자 수는 174명이며 사망자는 94명이었다.

이는 1주일 전에 비해 감염자와 사망자가 각각 4명과 2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인도네시아와 이라크에서 1명씩 추가로 발생 했다. 현재까지 국가별 사망자는 베트남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20명, 태국 14명, 중국 8명, 캄보디아 4명, 터키 4명, 이라크 2명 순이다. WHO의 집계는 정밀조사를 거쳐 뒤늦게 반영 되는 만큼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달간 유럽과 아프리카 등 20여개국에서 H5N1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AI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독일 뤼겐 섬의 죽은 고양이 몸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독일 프리드리히 뢰플러 수의학연구소가 밝혔다. 유럽에서 포유류의 AI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에서는 2004년 가정에서 키우던 고양이 2마리와 동물원 고양이 1마리가 AI에 감염돼 숨진 바 있다.

같은 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스웨덴에서도 야생오리 2마리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한편 이날 미국이 프랑스 에서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에 따라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나라는 모두 43개국으로 늘어났다. 마이클 레빗 미국 보건장관은 3월 1일 상원 청문회에서 AI의 미국 전파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언제쯤 위협을 줄 것인지는 잘 모르나(미국 전파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 2006년 3월 2일

### FIFA 블라터 회장 “AI로 월드컵 취소할 수 있다”

국제 축구 연맹(FIFA) 제프 블라터 회장이 오는 6월 개최되는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걱정을 드러냈다.

블라터는 “현재는 괜찮지만 만약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콜레라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면 독일 정부는 특단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며 독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월드컵 축구 대회를 취소해야 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미 독일 정부는 북동부 발트해 연안의 튀겐 섬에서 폐사한 백조 2마리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부터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독일 정부의 걱정은 갈수록 태산. 시호퍼 독일 농림부 장관 역시 튀겐섬 시찰 후 “AI가 곧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지난 달 21일에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번져나간다면 2006 독일 월드컵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한 상황에서 제프 블라터 회장의 말은 상당한 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월드컵이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럽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체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월드컵 개최를 코앞에 둔 독일 정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쿠키뉴스 / 2006년 3월 4일

### 아스피린도 남녀차별?

우리 사회에서 남녀의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학협회저널(JAMA)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 되는 약품 중 하나인 아스피린도 남녀를 차별한다고 보고, 눈길을 끌었다.

뉴욕주립대 연구진이 1966~2005년 3월에 9만5,456명(남성 4만4,114명, 여성 5만1,3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된 6건의 연구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아스피린의 심혈관 보호작용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르게 나타났다.

아스피린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여성들은 뇌졸중이 17%나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심근 경색의 경우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즉, 아스피린은 남성의 심근 경색을 32%나 감소시키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6건의 연구 중에서 3건은 남성, 1건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건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 개시시점에서 심혈관 질환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경제 / 2006년 3월 8일

### 미국, 치매치료 신물질 개발

치매의 진행을 차단하는 신물질이 개발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3월 2일 보도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신경생물학과의 프랭크 라펠라 박사는 의학전문지 ‘뉴런(Neuron)’ 최신호(3월 2일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물질 ‘AF267B’이 손상된 기억 기능을 회복시키고,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인 뇌세포 밖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과 뇌세포 안의 타우 단백질 엉김을 줄여 주는

것으로 쥐 실험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라펠라 박사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도록 유전 조작된 쥐들에 신물질 을 투여했더니 대뇌피질과 기억 중추인 해마(海馬)의 뇌세포 안팎에서 형성된 단백질 엉킴과 응집이 줄어들면서 학습과 기억 기능이 보통 쥐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편도(扁桃)에서 는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 2006년 3월 4일

## 국내 소식



### 15년간 암투병해온 在美 20대 과학자, 암세포 죽이는 단서 찾았다

존스홉킨스대 김정환박사(수의사) 권위지에 표지논문

어깨뼈 모두 제거 상태 “힘들 때 지켜준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해 연구”  
운동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중학생 소년은 어느 날 야구를 하다가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병원의 진단 결과는 소년의 눈앞을 캄캄하게 했다. 연골에 암이 생겼다는 것. 소년은 그때부터 대학 3학년 때까지 암 치료를 위한 수술을 4번이나 받았다. 오른쪽 어깨뼈를 대부분 제거했고 오른쪽 위 팔뼈는 인공뼈로 대체했다.



김정환 박사

젊은 날을 암과의 싸움에 모두 바친 그 소년이 촉망받는 과학자로 성장해, 세상의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에서 암 연구를 하고 있는 김정환(金廷桓·29) 박사가 주인공. 그의 상태는 매우 호전됐지만 아직도 정기적으로 암 재발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

김 박사는 삼성의료원 분자치료센터와 미 펜실베이니아대를 거쳐 올 2월 존스홉킨스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주된 연구과제는 암세포의 전이(轉移). 김 박사는 3월 7일 생명과학분야 권위지인 '셀 메타볼리즘'에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저널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김 박사는 작년 미국 전역에서 응모한 1500명의 대학원생 중 49명만 선정된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 펠로십'에 포함될 정도로 기대를 한몸에 모으는 젊은 암 연구자가 됐다. 암 연구에 쏟은 그의 열정은 고통스런 시간 속에서 솟아났다.

“한창 유학준비를 하던 때엔 어깨뼈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었죠. 몇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 멍하게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의사가 꿈이었던 김 박사는 건국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암과 투병하면서, 앞날이 보장된 수의사 대신 암 연구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고통에 빠진 나를 위해 곁을 지켜준 가족과 친구들을 보며, 받은 만큼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리고 암 극복을 위한 연구에 나 자신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암 환자인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 박사의 시련은 암뿐만은 아니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 가족 모두에게 시련의 시기였지만 어머니나 두 동생은 그의 회복을 위해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 역시 힘든 투병과정을 잘 견뎠다. 덕분에 지금은 무거운 것을 잘 못 들고 오른팔을 끝까지 못 올리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김 박사는 산소가 부족해질 때 세포가 분비하는 ‘HIF-1’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해로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 연구결과를 역으로 이용하면 암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하게 함으로써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죽이게 할 수 있다.

“한창 뛰어다닐 나이에 한 달씩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투병 중인 암 환자들도 정말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조선일보 / 2006년 3월 8일

### “사람과 똑같아요”..애완견 장례식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완견 장례식도 보편화되고 있다.

애완동물 장례서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아끼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가족’이 사망했을 때처럼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장례식은 애완견의 사체를 알코올로 닦은 뒤 수의를 입히고 입관, 헌화의 절차로 진행되며 장례식 뒤에는 화장, 유골수습을 하는 등 일반적 장례절차와 흡사하다.

대구의 모 애완동물장례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서종안(42)씨는 “한 달에 10건 정도 장례식을 치르고 있으며 화장이 끝난 뒤에는 사이버 묘소를 운영해 세상을 떠난 애완견을 위한 추모공간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3월 7일 말했다.

서씨는 “예전에는 애완동물 사체를 몰래 땅에 묻거나 봉투에 넣어 버리는 등 불법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장례식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 2006년 3월 7일

### 첨단 수의학 세계 공금증 폰다

애니멀플래닛, 월요일밤 10시 ‘동물환자들 제2인생’ 방영

스카이라이프의 동물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애니멀플래닛(채널 404번)은 3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첨단 수의학의 세계를 살펴보는 6부작 시리즈 ‘스티브 어윈의 동물 환자들의 제2의 인생’을 방영한다.

최근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각종 최첨단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고, 보다 풍요

로운 삶을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다. 수의학 분야의 개척자들이 인간 치료에서 파생된 수술법, 첨단 법의학 등을 동물 치료, 관리에 적극 적용시키고 있다.

애니멀 플래닛의 인기 프로그램 ‘악어 사냥꾼’의 진행자 스티브 어윈은 새 시리즈에서 아프리카 초원,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지, 유명 수족관과 동물원 등 전세계를 여행하며 ‘신중수의사(new breed vets)’ 들로부터 동물 관리에 있어서 혁신적이라 할만한 각종 방법을 배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제 2의 인생’ 을 맞이한 동물들과 함께 한다.



6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첫 에피소드 ‘쓰나미의 생존자들’에서는 2004년말 동남아시아 일대를 휩쓸고 간 쓰나미 이후, 이 엄청난 재앙이 동물세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한편, 애니멀 플래닛(Animal Planet)은 세계 최초 24시간 동물 다큐멘터리 전문채널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만 방송되는 독점 채널이다.

디지털타임스 / 2006년 3월 6일

### 🌐 경상대 수의대, 유기동물 기금마련 바자회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졸업생들의 헌 자취도구를 모아 수리한 뒤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자금으로 유기동물을 보호, 치료해 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월 27일 이 대학 후문 공터에서 냉장고, 책상, 의자, 밥상, 청소기, 행거, 선풍기, 책장, 모니터, 옷장 등 자취도구를 판매하는 바자회가 수의과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바자회에서 판매하는 100여점의 물품은 학생들이 졸업하는 선배들의 자취도구를 일일이 수거해 먼지를 털어내고 수리해 비교적 새 물품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수거해 지난해 처음 연 바자회에서 5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학생들은 올해도 점당 3천~3만원 정도에 팔아 50만~6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이 바자회를 여는 것은 진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라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박유환 동물복지모임 회장은 “가족처럼 소중하게 키우던 애완동물을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버리고 집을 나가도 찾지 않는 주인이 많아 안타깝다”며 “동물행동 연구와 병 치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유기동물 보호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4년 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학과 내 동아리 ‘동물복지모임(회장 박유환, 23.본과2년)’은 회원들이 매달 회비 1만원씩 내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에 쓰고 있다.

물론 학과 교수와 졸업 선배, 후원회원들이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며 해마다 10월 열리는 애견잔치 때도 스폰서 업체에서 사료나 애견용품 등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연합뉴스 TV / 2006년 3월 2일

## 아이들 뛰는 소리, 한밤 세탁기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아파트 소음 자율규제

‘아파트에서 밤 11시 이후 세탁기를 돌리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벌금 부과, 또는 위반자 명단공표’ …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런 내용의 관리규약을 만들어 층간 소음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아파트 층간 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

건설교통부는 2월 23일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 소음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규약 제정은 다음달 말쯤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이들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애완견 소음, 늦은 시간의 세탁기·청소기·헬스기구 사용 등을 층간 소음 규제 대상으로 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게 했다. 이를 근거로 입주자들이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서면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사항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의하면 주민 50% 이상이 동의해야 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다. 대표회의에서 발의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층간 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2000년 7,480건에서 작년에는 2만9576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를 바꿀 때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의 부모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관리규약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 / 2006년 2월 24일

## 휴전선 인근지역 지난해 광견병 14건 발생

지난해에도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14건의 광견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21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광견병은 야생 너구리 2마리를 포함해 개 8마리, 소 4마리 등 국내에서 총 14마리의 동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지역은 강원도 홍천 등 휴전선 접경지를 중심으로 모두 한강 이북의 경기도와 강원도로 제한돼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방 활동으로 광견병 발생이 확산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너구리 등 야생 동물에 의한 감염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생 동물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간헐적인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5년 이래 8년간 발생하지 않다가 1993년 재발한 광견병은 2년을 건너 뛰어 1996년 5건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발생건수가 78건까지 늘어난 뒤 2003년 30건, 2004년 26건 등 작년까지 10년 연속 발생했다.  

연합뉴스 / 2006년 2월 21일